

“이번에도 악역... 신나게 욕먹었죠”

‘종이달’ 공정한 못난 남편 연기
라벤드로 데뷔했으나 배우 전업
“70살까지 작품 100개가 목표”



배우 공정한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악역은 어떻게 하면 더 나쁘게 보일지 마음껏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집에서 대본 생각을 하다 보면 애들이 ‘아빠 표정이 왜 그래?’ 하고 물어보기도 하죠.”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달’ 종영을 기념해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공정한은 종이 소감을 묻자 “이번에도 신나게 욕을 먹었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공정한은 “10년 중에서 8번은 악역을 연기했다”는 악역 전문 배우다. ‘종이달’에서는 명예와 사회적 성공이 인생의 목표인 유이화(김서형 분)의 남편 최기현 역을 맡았다.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지만, 말투에서 묻어나는 무서움과 무관심이 아내를 숨 막히게 한다.

“아줌마처럼 안 보이게 꾸며요”라며 직접 고른 드레스를 입고, 마트에서 재밌었던 일에 대해 말하며 대화를 시도하는 아내에게 대담카드를 꺼내주며 “돈 좀 달라는 말을 뭐 그렇게 빙빙 돌려서 해요”라고 말문을 막는 식이다.

공정한은 “최기현은 본인의 빼돌려진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긴 했다”며 “어릴 적부터 있던 자존심이 커서 아내를 상대로 발원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 주름이 콤플렉스인데, 이번에는 연기하면서 자유자재로 썼다. 주름 때문에 더 못돼 보인다는 반응이 재밌기도 했다”고 덧붙혔다.

‘못난 남편’ 최기현을 더 못나 보이게 만들기 위해 대본에 없는 애드립을 추가하기도 했다

고 한다.

그는 “와이프가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몸을 뒤로 빼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방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데, 마스크는 직접 준비한 소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실수를 다그치면서 ‘스읍!’ 하는 것도 대본에는 없었는데 더 날미워 보이도록 추가했다”고 전했다.

늘 고분고분하게 출퇴근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리고, 회사 모임 자리가 있으면 본인이 골라준 대로 예쁘게 꾸미고 나오던 아내를 경력단절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에 재취업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성과금을 받았다면서 집안일을 대신할 비싼 가전제품을 덕택 사기 시작하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에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말대꾸까지 한다.

공정한은 “결국에 기현의 결핍은 이화”라며 “갖고 싶은데 못 가지고, 마음대로 다루고 싶은

데 다뤄지지 않는다”면서 “이화는 기현의 이런 결핍과 속마음을 다 알고 있고, 그런 남편을 참작고 안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1998년 투투 출신 황혜영과 결혼한 5인조 락 밴드 오라실로 데뷔한 공정한은 배우로 전업한 이후 드라마 ‘추노’ (2010), ‘아테나: 전쟁의 여신’ (2010), 영화 ‘판도라’ (2016), ‘공조’ (2017), ‘한산: 용의 출현’ (2022) 등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공정한은 “제 장점이자 단점이 일을 한번 시작하면 잘하던 못하던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라며 “배우로서 목표가 있다면 70살까지 꾸준히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쉬지 않고 연기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배역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 하고 있어요. 악역 말고 다른 연기도 해보고 싶기는 한데, 같은 악역이라도 조금씩 변주를 주면서 하다 보면 다른 길도 열릴 거라 믿어요. 제 목표는 70살까지 작품 100개를 하는 겁니다. (웃음)”. /연합뉴스

“4분 만에 자존감 되찾는 마법 느끼세요”

여자 아이들 6집 ‘아이 필’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킨카”



그룹 (여자)아이들 (왼쪽부터)민니, 미연, 소연, 우기, 슈화 /연합뉴스

“내가 나를 예뻐하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예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거든요.”

당당한 노래 가사와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로 사랑받은 그룹 (여자)아이들의 다섯 명의 킨카로 돌아왔다.

미니 6집 ‘아이 필’ (I feel)로 7개월 만에 돌아온 (여자)아이들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조선 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모습 이든 그 자체로 ‘킨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전작 ‘누드’ (Nxde)와 ‘툰보이’ (Tomboy)에서부터 일관되게 “나를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해온 (여자)아이들은 이번엔 SNS를 통한 비교가 일상이 된 요즘 시대에 자존감을 찾는 법을 알려준다.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SNS 스타부터 피트니스 강사,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평범한 20대 소녀 등의 역할을 맡은 멤버들이 각자의 고민과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과정이 담겼다.

리더 소연은 “이번 음반에서는 한 편의 코

미디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며 “무거운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려 하기보다는 코미디 영화처럼 가볍게 보고 나면 여운과 메시지가 은은하게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공개곡 ‘알리지’ (Allergy)는 SNS 속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고민하는 평범한 20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다.

타이틀곡 ‘킨카’에서는 ‘알리지’에서 자신을 남과 비교하던 인물이 자신감을 되찾고 진정한 킨카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 외에도 몽환적인 분위기의 수록곡 ‘루시드’ (Lucid)를 비롯해 ‘올 나잇’ (All Night), ‘파라다이스’ (Paradise), ‘어린 어른’ 등 멤버들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한 노래 총 6곡이 담겼다. /연합뉴스

‘크리에이티브 아이돌’ 베리베리 미니 7집 발매

데뷔 4년차 실력과 ‘창작돌’



그룹 베리베리 /젤리피쉬 제공

멤버들이 작사, 작곡, 안무 등 프로듀싱에 참여하며 ‘크리에이티브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그룹 베리베리가 6개월 만에 새 음반으로 돌아왔다.

16일 미니 7집 ‘리미널리티-EP.드림’ (Liminality-EP.Dream)을 발매한 그룹 베리베리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한 인터뷰에서 “‘꿈’을 주제로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간직해온 꿈들을 담은 음반”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내놓은 ‘리미널리티-EP.러브’에 이어지는 이번 음반은 ‘행복’에 필요한 요소를 한 가지씩 주제로 내세운 시리즈 음반이다.

멤버 용승은 “저희 베리베리가 그동안 꿈을 향해 달려오며 간직한 건전한 독기와 야심을 가감 없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크레이지 라이크 댓’ (Crazy Like That)은 꿈을 향한 독기를 긍정적인 가사로 풀어낸 곡이다. 테크노와 일렉트릭 베이스 연주에 몽환적 분위기의 보컬이 엮어진 것이 특

징이다.

베리베리는 ‘크리에이티브 돌’이라는 수식어답게 이번 음반에서도 수록곡 ‘레인코트’ (Raincoat), ‘스마일 위드 유’ (Smile With You) 등의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멤버들은 두 곡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팬들의 곁에 함께 있겠다는 내용의 가사를 통해 팬들의 꿈도 응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았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하이라키’ 제작 확정

노정의·이채민 출연

넷플릭스는 새 오리지널 시리즈 ‘하이라키’ 제작을 확정하고 주요 출연진을 캐스팅했다고 16일 밝혔다.

배현진 감독이 연출하는 ‘하이라키’는 상위 0.01%가 법으로 군림하는 주신고등학교에 전학생 ‘강하’가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배우 노정의는 재윙그룹 장녀이자 주신고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는 ‘정재이’를 연기한다. 재

윙그룹은 주신고를 운영하는 주신그룹의 라이벌이다. 주신고에 전학 온 비밀스러운 학생 ‘강하’ 역할은 드라마 ‘일타스캔들’ 등으로 얼굴을 알린 이채민이 맡았다.

주신고 서열 1위이자 주신그룹 후계자 ‘김리안’은 김재원, 무역회사 막내딸 ‘윤혜라’는 지혜원, 정치 명문가의 아들 ‘이우진’은 이원정이 각각 연기한다. 배현진 감독은 드라마 ‘환혼: 빛과 그림자’ (2022~2023), ‘빅마우스’ (2022), ‘스타트업’ (2020) 등에서 공동연출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드라마 ‘하이라키’ 배우 노정의(왼쪽)와 이채민 /각 소속사 제공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이슈 픽 쌤과 함께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별만한 아침 1부 8:05 해 별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굿이야 굿이야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어쩌다 미주친 그대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하늘의 인연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45 기분 좋은 날 10:45 보보보 좋아 좋아 11:45 주니토니 이야기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예니컬러리 11:30 나비의 모험	6:10 세계대마기행 7:00 시골 7:15 허브의 친구들 7:45 연마 깨우리 8:00 평등방 유치원 8:20 웃기는 처음 영어 9:05 최고다. 호기심 딱지 9: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10 한국의 들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대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숲이 그린 집 1:00 평생학교 1교시 2:45 평생학교 2교시 4:00 영어 스토리 타임 5:00 페피피그 6:10 흥행팬픽 부부맨 7:00 한국의 들레길 7:50 귀하신 몸 8:40 세계대마기행 9:35 한국기행 9:55 다큐멘터리K 10:50 숲이 그린 집 11: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2:00 KBS뉴스12 1:00 아마도 마지막 존재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KBS뉴스 2:10 열린채널 3:20 필도밥상 4:00 시사간전 5:00 KBS뉴스5 5:30 동물의 왕국	12:15 생활의 발견 스페셜 12:25 홍김동전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0 KBS 뉴스타임 3:10 린다의 신기한 여행 3:30 TV 유치원 4:00 스튜디오K 5:00 도깨비 캠프 5:15 소스리아 5:30 골뎌 영화가 좋다 5:50 통합뉴스룸ET	12:15 12 MBC 뉴스 12:25 MBC 네트워크 특선 1:25 글로벌 동물뉴스 1:55 2시 뉴스의전 3:55 기분 좋은 날 4:55 5 MBC 뉴스 5:10 PD수첩	12:00 SBS 12뉴스 12:50 골 때리는 그녀들 2:00 뉴스브라운 4:00 와이드 정보쇼 5:00 SBS 오뉴스 5:50 편먹고 공차리5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일꾼의 탄생 8:30 굿이야 굿이야 9:00 KBS뉴스9 10:00 생로병사의 비밀 10:50 더 라이브 11:30 KBS뉴스라인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하늘의 인연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일타강사 10:30 라디오스타	6:30 2TV 생생정보 7:50 비밀의 여자 8:30 옥탑방의 문제아들 9:50 과학수사대 스모킹엔 11:00 9층 시사랑 11:45 세상의 모든 디큐	6:50 생방송 투데이 7:30 SBS 8 뉴스 9:00 골 때리는 그녀들 10:40 편먹고 공차리5	6:50 생방송 투데이 7:30 SBS 8 뉴스 9:00 골 때리는 그녀들 10:40 편먹고 공차리5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하늘의 인연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일타강사 10:30 라디오스타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5월 17일 (음력 3월 28일)

<p>48년생 마음 털어놓을 친구가 생긴다. 60년생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 72년생 구설이 생기니 말을 삼가라. 84년생 기다린 보람이 생긴다.</p>	<p>49년생 지나침이 부족함만 못하다. 61년생 뜻대로 이뤄지긴 어렵다. 73년생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85년생 헛된 욕심은 화를 부른다.</p>	<p>50년생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 62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는 시기가 아니다. 74년생 먹구름이 물러난 하루다. 86년생 친구와 의논하라.</p>	<p>51년생 순탄한 하루다. 63년생 혼란스러운 마음 스스로 다스려라. 75년생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7년생 결과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다.</p>	<p>52년생 선부른 감정을 추슬러야 다툼이 없다. 64년생 은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76년생 조심해도 지나가지 않는다. 88년생 멀리 내다보라.</p>	<p>41년생 배운 만큼 돌아온다. 53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65년생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라. 77년생 인내가 현명한 방법이다.</p>	<p>42년생 생각을 접어라. 54년생 운동도 내게 맞는 것을 하라. 66년생 헛된 재물 욕심은 버려라. 78년생 기회가 좋은니 놓치지 마라.</p>	<p>43년생 매사가 평탄하다. 55년생 많은 생각은 자칫 건강을 해친다. 6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가방 조심을 하라. 79년생 형제간의 우애가 두텁다.</p>	<p>44년생 자식이 효도하는 날이다. 56년생 친구와 화해하니 더욱 우정이 돈독하다. 68년생 대의를 위하여 과감한 이별이 필요하다. 80년생 오늘은 자중하라.</p>	<p>45년생 친구와의 의리를 지켜라. 57년생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지 마라. 69년생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81년생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법이다.</p>	<p>46년생 여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 58년생 노력한 만큼 결실은 돌아온다. 70년생 소신껏 행동하라. 82년생 하는 일에 걸림이 없다.</p>	<p>47년생 생각을 멈추고 행동으로 옮겨라. 59년생 뒷감당 안되는 일은 피하고 보자. 71년생 생겨진 불도 다시 보라. 83년생 될 놈은 어떻게든 된다.</p>
---	---	--	---	--	--	---	---	--	--	--	---